



전북개발공사, 중대재해 제로 안전결의대회 개최

전북개발공사 공사 임직원과 사업현장 관계자들은 16일 안전보건 경영 실천 및 경영개선을 다짐하기 위해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개발공사는 '안전의 날(매월 16일)'을 맞아 공사 임직원과 사업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그간 공사는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안전 전담부서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결의 다짐식 개최에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전문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추가로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도 취득, 안전사고 예방 및 ESG 경영을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아람 기자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전통시장 지킴이 역할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전주 전통시장 화재안전 지킴이로 맹활약 하고있다.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겨울철 전기하터·전기장판·전기열선 등 계절적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자 모래내 전통시장에 대한 자발적인 화재 예방 철시 순찰을 펼치고 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모래내 전통시장 일대에 화재 예방 순찰을 펼치며 시장 일대 비상 소화전과 보이는 소화기 점검으로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강정석 전주덕진 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회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모래내 전통시장 철시 순찰 이외에도 전주전·이중호수 수난사고 예방순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덕진구 주민 안전 위해 솔선수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풍남로타리클럽, 예수병원에 유틸리티 카트 기증

국제로타리 3670 지구 전주풍남로타리클럽 지역민 사랑 메시지는 환한 웃음 속에 기지개를 폈다. 16일 김주호 전주풍남로타리클럽 회장 및 회원들은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찾아가 준비한 유틸리티 카트 12대를 전달했다. 앞으로 예수병원을 찾는 모든 아들과 의료진들의 편리를 더한 활용성 많은 유틸리티 카트는 각 병동에 배치되어 환우들과 의료진 활동에 많은 유익으로 사용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호 회장은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에 기분이 들른다. 병원전체 웃음이 솟아날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신충식 병원장은 "전주풍남로타리클럽의 암 환자 후원에 이은 또다른 선행은 예수병원에 대한 사랑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민을 위한 의료기관 역할을 다하는데 큰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전주풍남로타리클럽은 회원 261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의 로타리클럽으로서 청소년 장학사업,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암 환자 지원사업 등 예수병원을 포함해 매년 3억여 원 이상을 지역사회에 후원하고 있는 단체다. /김영태 기자

'꿈을 향한 또 한걸음!'

전주 송천중·고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송천중)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제32회 전주송천중·고등학교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 '꿈을 향한 또 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송천중·고등학교 졸업장 전수식 자리에는 '졸업생 중등반 22명, 고등반 5명, 장재원 송천중·고등학교장, 이만수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3명, 조항순 전주 소년원협의회 회장 황동현 고문 박병훈 위원(계림고 교장), 임관 부회장 최은화 감사, 김도은 위원장, 이성운 종교위원장 윤형철 위원, 김동우 사무국장, 노수선 재무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큰 축하꽃을 피웠다. 졸업장 전수식에선 장학금 및 학교장상, 교육감상 시상(장재원 송천중고등학교장으로 부터 중등반 22명 고등반 5명 졸업장 전수식을 시작으로 '학교장상 시상(중등반 1명, 고등반 2명), 교육감상 시상(교사 1명, 중·고 24명),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항순 회장 황동현 고문 외(중등반 4명, 고등반 2명), 졸업생 대표 낭독,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중학교 졸업장 전수를 받은 학생들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갈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현재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이날 전주소년원협의회(100만 원), 마이산탐사 감동정화회(100만 원), 솔내장학금(60만 원) 장학금 전



달은 '기대와 희망'이라는 시간속에 전달했다. 졸업생 낭독에서 "그동안의 배움속에 깨달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란 그의 소리와 함께 참석자들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장재원 교장은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며 희망의 내일을 향해 꿈과 함께하길 바란다. 함께 멈추자라고 뒤차 그리고 웃자"고 화답했다. 이만수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감사에 박수를 보내며 제32회 송천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항순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은 "인생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반듯이 인생성공의 기회가 온다. 전진아만 포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어린이집 원생들 아나바다 수익금 발전후원회 기부

전북대병원어린이집 아이들이 아나바다시장이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87만5000원을 병원 발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16일 전달식은 유희철 병원장 김경화 대외협력실장, 김중우 총무과장, 전북대병원 어린이집 최영숙 원장, 오현일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등의 관계자와 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엔 전달된 후원금은 전북대병원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난해 아나바다 시장놀이에 직접 참여한 정성스럽게 모은 것이다. 전북대병원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경제활동 경험 교육을 위해 매년 1회 아나바다시장놀이(경제교육 바자회 활동)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수익금을 매년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19년도부터 시작한 발전후원금 전달은 올해까지 총



60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모아 기부한 원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격려하고 졸업을 맞이한 12명의 원아를 축하하기 위해 색연필을 준비해 선물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산림조합, 경영성과 대상 수상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정기표창 시상식에서 경영성과평가가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영성과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매년 142개 전 조합을 대상으로 성장성, 건전성, 실적지표를 종합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산림조합은 이 부분 경영성과가 우수한 조합으로 선정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2022년도 상반기 산림조합 금융 성장성 평가 부분 동상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조합 선정에 이은 경사로, 박철수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산물이라는 후문이다. 박철수 조합장은 "연이은 수상에 조합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라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조합원의 환원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십자사, 자립준비청년들 위한 밀키트 등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 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까지 도내 자립준비청년 38명을 대상으로 27주동안 밀키트·주부식·백미(10kg)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을 일컫으며, 현재 전북 도내에 자립준비청년은 약 720여명정도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자립준비청년 38명에게 손질된 식재료를 대상자 스스로 조리하고 조리법을 학습하는 식생활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수혜자와 적십자봉사원 1:1 결연 매칭 후, 월 1회 이상 방문해 식생활 및 일상생활 지도 멘토링을 병행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밀키트 지원사업, 요리교실 운영, 요리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전북은행, 무주군에 선물꾸러미 100상자 기탁

전북은행이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면서 각종 생필품이 들어있는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기탁했다. 이날 전북은행 김명민 부행장은 황인홍 군수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역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게 됐다"라며 "주민들에게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선물꾸러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절수된 성품은 무주군 저소득 세대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이웃돕기를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6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에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보낼 구호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실군의회 의원 8명 모두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참여로 마련됐으며, 긴급구호품, 식료품, 피난처 지원 등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현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비전대, 어르신 대상 행복증진 레크레이션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2시간씩 어르신 238명을 대상으로 '행복증진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은 온몸으로 웃어보기, 마술을 이용한 치매예방 인지놀이, 몸풀기 체조/노래부르기, 우울증 예방 및 치매예방 교육, 소근육 운동을 통한 내 몸 깨우기 등으로, 지역 노인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축돼 가는 노년층의 삶을 대비한 활기찬 행복증진 의사 소통법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김은성 원장은 "이번 레크레이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헬스케어 실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의 의료용과 고부감을 해소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중진공,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12기 졸업식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16일 덕진구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12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졸업인원 40명)을 개최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창사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교육·코칭, 사무공간, 시제품제작 등을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이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12기 졸업생은 899명으로 작년 어려웠던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12월말까지 매출 2678억 원, 고용 2491명, 투자유치 227억 원이라는 성과를 창출해냈다. 이번 졸업식에서 우수졸업기업 포상 및 졸업장 수여, 12기 졸업생별 성장스토리 공유, 선배기업 응원 메시지, 청년창업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 논의 등이 진행됐다. 졸업식은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배 졸업생들이 사진 촬영 및 사회자 등으로 직접 참여하여 행사를 함께 했다. 우수졸업기업 포상에는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전문 물류기업 '주식회사 시크한'의 신하수 대표이사 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이승창 팀장(063-210-9912), 이동명 과장(9945)에게 문의하면 된다. /임종은기자